

#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를 전하다. '김은수' 퍼커셔니스트

당신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지역에서 퍼커셔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수라고 합니다.

타악기 연주가, 퍼커셔니스트?

퍼커셔니스트를 보통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북도권에서 퍼커션을 활용하는 밴드가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씩 만나보면 일단은 저는 굉장히 신기한 연주자예요.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퍼커셔니스트가 된 계기는?

제가 백제예술대학 실용음악학과를 나왔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항상 정기연주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 다양한 악기들을 다루더라고요. 그때 연주를 하는데 한 친구가 콩가를 엄청 신기하고 맛깔나게 연주를 하는거예요. 그걸 처음에 봤을 때 저런 소리가 나는 악기들도 있구나. 와~ 나 저거 배워봐야지. 해서 그때 장학금을 다 털어가지고 서울로 주말마다 퍼커션을 콩가를 배우러 올라갔다가 내려 왔다가 이렇게 했었던게 사실 퍼커셔니스트로 전향하게 된 첫 번째 시작이요. 그리고 이제 드럼이 내주는 음악에서 담당하는 부분과 퍼커션이 담당하는 부분이 되게 다른데 사실 저는 성격상 중심인물로서 뭔가를 해내는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부를 빈자리들을 속속 채워주는 그런 매력이 퍼커셔니스트로 전향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팀들은?

퍼커셔니스트로 활동을 한 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퍼커션을 쓰는 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권 중심으로 활동하는 '나니레' 라는 국악관현악단의 퍼커션도 맡았었고, 그리고 '이희정밴드'. 그리고 지금 '오호밴드' 라는 어쿠스틱한 어반한 음악을 하는 팀인데요. 어반 어쿠스틱을 하는 팀인데 그 팀에서 퍼커션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퍼커션의 범주가 조금 넓어서요. 국악이나 그런 타악기들도 거기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퍼커셔니스트로 활동하고 싶어서 만든 팀이 또 하나 있는데 '세악사' 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제가 퍼커셔니스트로 활동하는 팀입니다.

추구하는 음악스타일은?

저는 다양한 소리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은 소리가 진짜 다양하다 보니까. 소스들이라고 하죠. 저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 다양한 소리들을 하나하나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세악사' 라는 팀을 같이 하자고 제가 꼬셨는데 이 팀은 미니멀리즘, 메디테이션 이런 느낌의 장르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들 하나하나를 조금 오래 씹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밴드 저 역시도 소리를 좀 오래 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런 퍼커션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음악적 영감은 어디서 받나요?

곡 작업은 주로 스토리하고 소리에서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팀원들과 같이 '고산가까' 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산에 와서 느꼈었던 그

소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전주에 살 때 도시에 살았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듣는 소리들이 있어요. 으레 듣는 소리들이. 예를 들면 학생들 학교 등교할때 호루라기 소리라던지 아니면 자동차 경적소리 차들 지나다니는 소리. 그런 도시의 소리가 있는데. 고산에 들어오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풀벌레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런 고요함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진행하게 된 게 '고산가까'라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런 소리들에서 받는 영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산에 실제로 사시는 분들 혹은 제가 영감을 받는 곳에서 사시는 분들의 스토리가 음악의 주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작업을 할 때 어찌 보면 뮤즈인 것 같아요.

#### 지역에서 음악인으로 산다는 건?

늘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저희도 그 질문을 받을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너 어떠니?" "너 지역에서 활동하는거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고 홍대에서 재즈클럽에서 호스트 드러머로서 활동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저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음악을 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역에 내려와서 음악을 해보니 편해요. 예술하기 되게 편해요. 물론 예술가로서 이제 주장해야되는 당연히 주장해야되는 권리들도 있고, 그리고 당하는 부조리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보다 음악 하기에 편안하고, 그리고 또 걱정이 덜 한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 보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 가야된다는 것이 저는 이제 깨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방탄소년단하고 블랙핑크가 증명해줬기 때문에.

#### 예술창업에 도전한 이유?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항상 느끼는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굉장히 터놓고 서로 공유해요.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여기까지는 저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 지속이 되면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도 똑같이 불평을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특이점이 온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죠. 아~ 그때 느꼈어요. 누가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아. 이게 법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 가야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네. 나랑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제의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작하게 된 게 처음 '두드림공동체타키'를 시작하게 됐고 '콘텐츠 무브먼트치다'가 그다음 발걸음이기도 한데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두드림공동체타키'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이윤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술교육의 혜택을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서른이 넘으면서 저한테 돌아오는 적금처럼 만기 된 적금처럼 돌아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 예술을 향유 한다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고 간다는 거. 굳이 대학입시가 아니어도 내가 예술로 돈을 못 벌어도 그런 하나의 시작점을. 제가 느꼈던 시작점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쉬운 예술의 시작점이에요.

#### 예술교육의 철학?

예술을 혼나면서 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예술을 할 때 예술은 쉬운 거고 네가 그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혼낼 권한은 아무한테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리 네가 비싼 악기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그 악기가 너보다 소중하지는 않다. 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 예술가, 교육가, 사업가?

예술가 김은수로서는 여러분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모습에 있어서 한가지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 위에 서는 선생님. 그리고 교육자 김은수로서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중간과정을 같이 공유하는

---

거죠. 그리고 사업가 김은수는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들이 있어요. 그런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악기를 쓰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결국에는 이게 어찌보면 생애주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분이 예술을 만나고 향유하고 그 예술을 통해서 기뻐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다시 새로운 예술을 만나는 그 사이클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예술가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타키'도 계속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더 신나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예술가 김은수로서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작품들이 있어요. 그 작품들을 무대 위에 서면서 스스로 그 준비과정부터 기획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보여드리는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도 좋은 무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무대를 홍보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고 한 가지 더 제 정체성이라면 사회혁신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저는 제 주변에 같이 실용음악학과를 졸업한 동생들이 벌어 먹고 살 수 있어야지 만이 제 직업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면 데이터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이면 사회공헌활동, 캠페인이면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

####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존에는 선생님이 나눠줬어요. 하얀색 도화지를 주고 이거를 가로 열 칸, 세로 열 칸 나눠 가지고 "자! 이 칸이 니 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던 도시의 삶이 있다면 완주에서는 그 도화지 8절지를 주면서 "니가 원하는걸 그려도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이 완주에서의 예술가로서의 삶인것 같습니다.

---